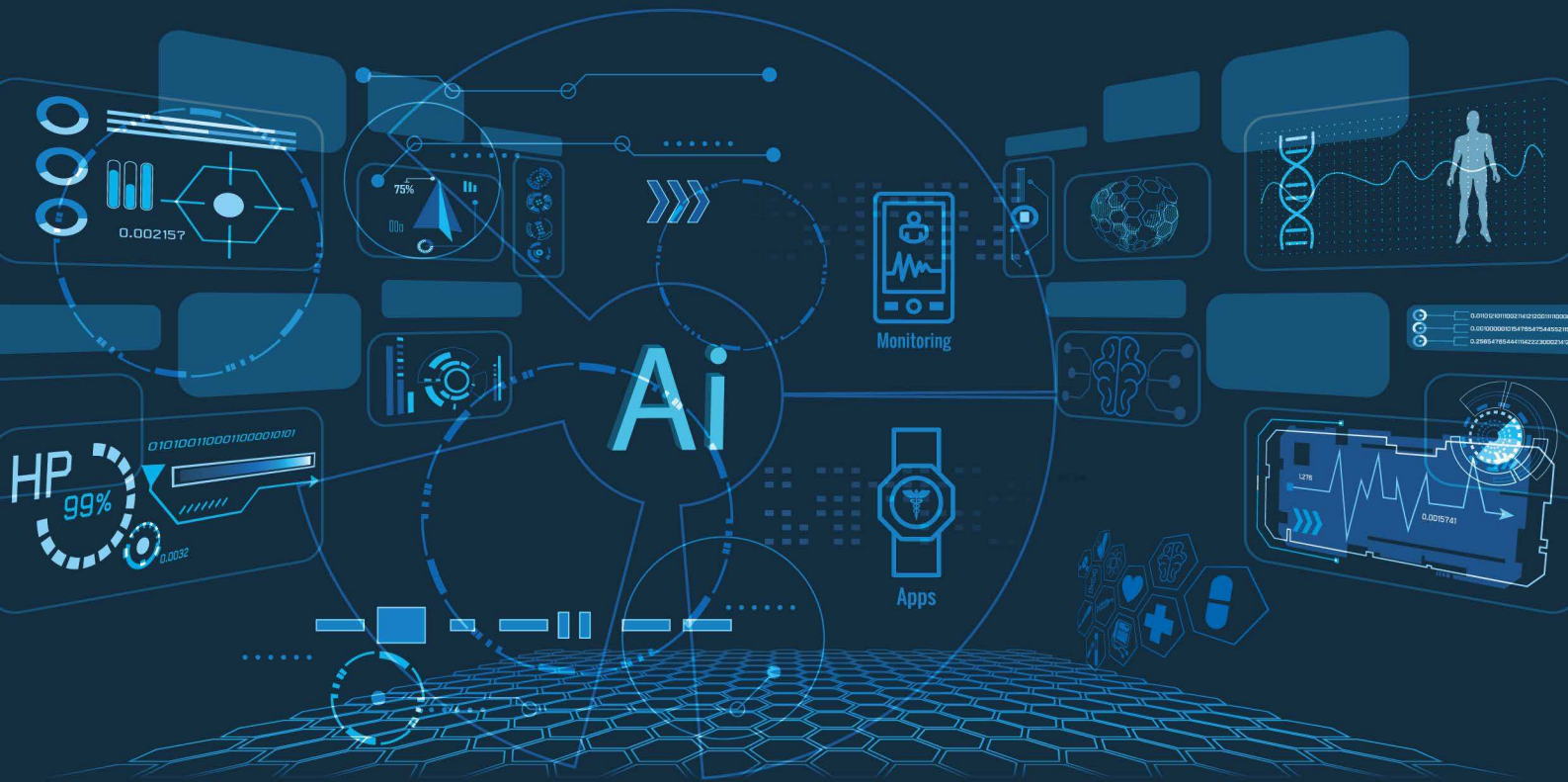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 AI 건강검진의 현재와 미래

2026년 04월 15일 (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KAMJ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Korean Assc. Medical Journalists.

후원

KMI 한국의학연구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사회 이진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14:00-14:10	개회사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
	축사	이광배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사진 촬영	

1부 주제발표 좌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

14:10-14:30	[Keynote] AI가 바꾸는 건강검진의 미래 지도	강대희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4:30-14:45	[발표1] AI 도입 건강검진센터, 어떻게 달라졌나	안지현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
14:45-15:00	[발표2] 피 한 방울로 암을 찾는다?…AI 액체생검의 현실과 가능성	정명훈 가던트헬스 한국 대표
15:00-15:15	[발표3] AI 건강검진, 믿어도 될까? 오해와 함정	김형진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
15:15-15:30	[발표4] 미디어에서 본 AI 건강검진, 기대와 불안	이지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

Coffee Break(15:30-15:45)

2부 패널토론 좌장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명예회장

15:45-16:45	조민우 울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과장
	박명희 (사)소비자와함께 대표
	김규빈 뉴스1 기자
	이수현 테서 대표

질의응답 및 폐회(16:45-17:00)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 민태원입니다.

오늘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 AI 건강검진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계신 의료진,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일반 국민,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정책 입안자 여러분이 한데 모여 우리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의 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인공지능(AI)이 있습니다. 과거의 의료는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기술을 통해 질병을 미리 예측
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정밀 의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분야에서 AI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정밀한 판독과 데이터 분석으로,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똑똑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AI는 숙련된 경험에 정밀함을 더해 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AI 검진은 질병을 보다 일찍 찾아내 개인 맞춤형 관리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한 건강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이런 기술 혁신이 사회적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AI 검진의 결과를 다 믿어도 될지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료의 건강검진 현장에 도입돼 있는 AI의 가능성과 한계 등 현주소를 짚어
보고 앞으로 인류의 건강 수명을 어떻게 연장해 나갈 것인지 그 미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할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AI라는 혁신적 도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 민 태 원

축사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함께 열어나가는 AI 건강검진의 혁신과 미래

안녕하십니까, KMI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광배입니다.

먼저,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라는 큰 주제 아래 'AI 건강검진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의료계와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의학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례 없는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분야에서 AI 기술의 도입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예방 의료를 가능하게 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건강증진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서, AI 건강검진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KMI 한국의학연구소 역시 지난 40여년 간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검진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더 정확한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고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 AI 생태계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건강검진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 광 배



[발표1]
AI 도입 건강검진센터, 어떻게 달라졌나

안지현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





AI 도입 건강검진센터, 어떻게 달라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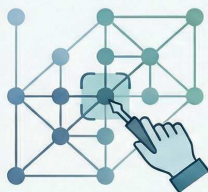
AI의 진화: 규칙에서 추론까지

Wave 1:
규칙 기반
(1980~90s)



사람이 직접 코딩한 규칙 안에서만 작동하며 유연성이 부족함.

Wave 2:
Shallow Learning
(1990~2012)



데이터 학습을 시작했으나, 인간이 데이터의 특징(Feature)을 직접 지정해야 함.

Wave 3:
Deep Learning
(2012~2022)



시가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며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초월함.

Wave 4:
LLM & Multimodal
(현재)



텍스트와 영상을 동시에 이해하며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추론함.

인공지능 생태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진단

뇌/신경 (Brain/Nerves)

SwiftMR (MRI 딥러닝 가속)
초고속·초고화질 스캔

흉부/호흡기 (Chest/Lungs)

JVIEWER-X (흉부 X-ray 분석)
16개 비정상 소견 즉시 탐지

소화기 (GI Tract)

WAYMED endo
위/대장 실시간 용종 탐지

안구 (Eyes)

DrNoon (안저영상 판독 AI)
단 1분 만에 심혈관 위험 예측

심장 (Heart)

mobiCARE & AiTiA
부정맥 및 심부전 2중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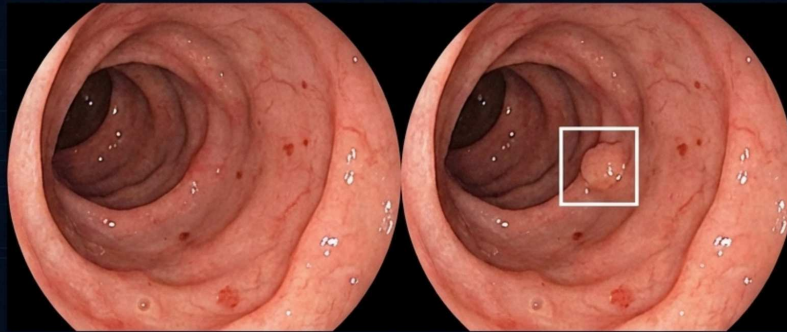
근골격계 (Musculoskeletal)

2D Joint Tracking
24개 관절 포인트 자세 분석



소화기 진단: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 '증강된 눈'

WAYMED endo (개발사: 웨이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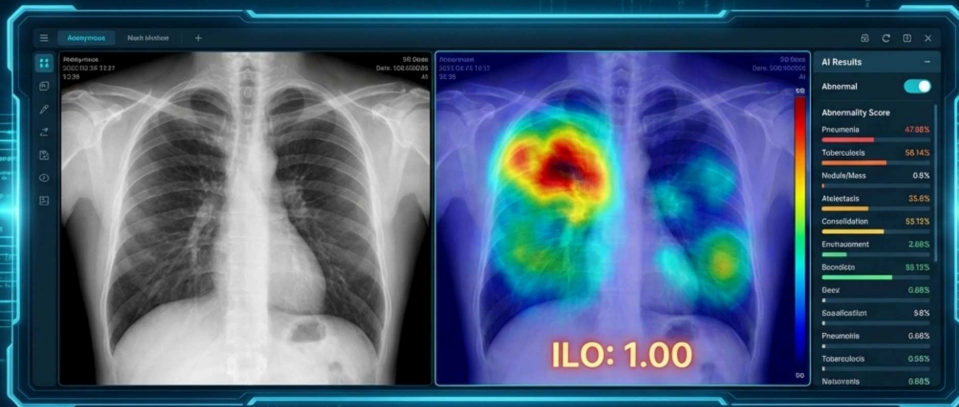
치명적인 맹점:

대장암 발생 사례 중, 내시경 중 용종 발견 누락으로 인한 비중이 52~57%에 달합니다. (미국소화기학회)

- **실시간 용종 탐지:** 내시경 카메라가 이동하는 찰나의 순간에도 이상 병변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 **시청각 알람 보조:** 병변 발견 즉시 시각적 바운딩 박스(Bounding Box)와 알람 소리를 발생시켜 의료진의 피로도/속련도 격차를 완벽히 보완합니다.
- **이상 병변 라스트 씬:** 검사 중 감지된 마지막 이상 병변을 우측 모니터에 고정 표시하여 즉각적인 절제 판단을 돕습니다.

흉부 진단: 피로를 모르는 인공지능의 정밀 탐지

JVIEWER-X (개발사: 제이엘케이)



의료진 피로도 제로화: 수많은 영상을 판독해야 하는 환경에서, AI는 피로도나 속련도에 따른 판독 오류를 원천 차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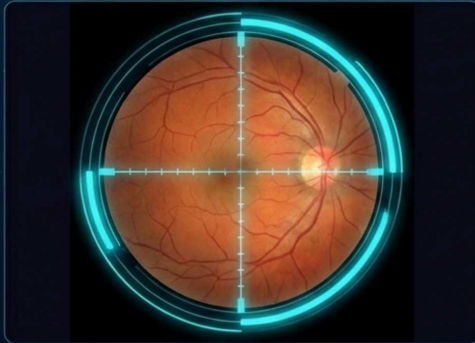
PACS 시스템 완벽 연동: KMI의 기존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의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워크플로우 내에서 즉시 지원합니다.

Abnormality Score: 16개 주요 흉부 비정상 소견에 대한 위험도를 수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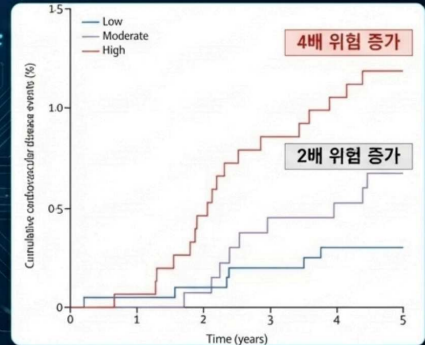
병변 시각화 (Heatmap): 의심 영역의 면적과 픽셀 값을 직관적인 컬러 맵으로 의료진에게 제시.

안저 진단: 눈을 통해 심혈관 위험을 예측하다

DrNoon for Fundus (개발사: 메디웨일)



단 1분의 스크리닝: 복잡한 절차 없이 단 1분 만에 끝나는 안저촬영으로 전신 질환의 징후를 읽어냅니다.
3대 안과 질환 동시 판독: 녹내장, 망막질환, 백내장 의심 여부 즉시 판독 (정확도 95%).



망막 혈관 기반 심혈관 위험도 평가: 시가 망막의 미세 혈관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군(최대 4배 위험 증가)을 조기에 선별합니다.

뇌·신경 진단: 물리적 한계를 돌파한 MRI 가속화

SwiftMR (개발사: 에어스메디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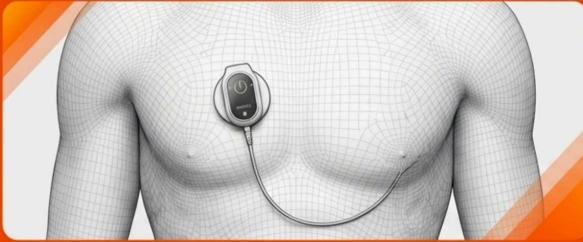
- 전통적 한계의 극복: 기존 MRI는 촬영 시간을 단축하면 영상 품질이 훼손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 딥러닝 복원 기술: SwiftMR은 추가 하드웨어 없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 저품질 영상을 고품질로 실시간 복원합니다.



- 촬영 시간 최대 50% 단축: 폐소공포증, 고령 수검자의 체류 시간 및 불안감 획기적 해소.
- 도입 규모: KMI 전체 MRI 26대 중 23대 전면 적용 완료 (1.5T 및 3.0T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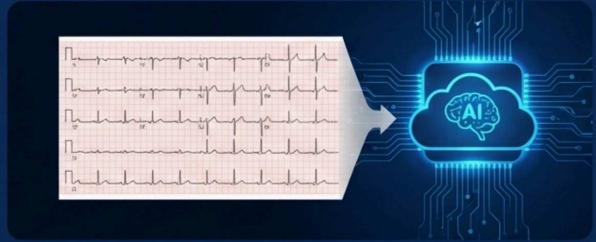
심혈관 진단: 부정맥과 심부전의 2중 철통 방어

동적 모니터링 (mobiCARE)



- 타겟 질환: 14종 이상의 부정맥 (Arrhythmia)
- 검사 방식: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착 (센터 체류 시간 내내 연속 측정)
- AI 역할: 실시간으로 수집된 방대한 심전도 데이터를 AI가 1차 자동 분석 후, 경계/이상 소견 시 전문가 2차 정밀 분석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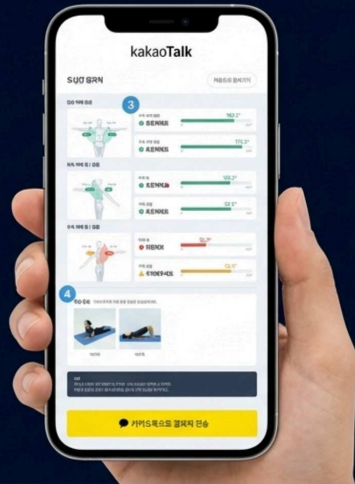
정적 딥-분석 (AiTiA LVSD)



- 타겟 질환: 무증상 심부전 (Heart Failure) 조기 진단
- 검사 방식: 기존 12유도 심전도 장비 (Cardiofax M ECG-3350)
- AI 역할: 표준 심전도 파형 속에 숨겨진 '좌심실 수축기능 부전'의 미세한 패턴을 딥러닝이 찾아내어 찾아내어 세계 최초 수준의 심부전 위험도 진단.

근골격계 진단: 24-포인트 관절 매핑과 동작 분석

AI 자세 추정 및 동작 분석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카메라 기반 비접촉 측정: 별도의 장비 착용 없이 카메라 영상을 통한 AI 이미지 분석만으로 2D 관절 위치 24개 포인트를 정밀 추적합니다.

초고속 기능 평가: 거북목 및 신체 밸런스 측정: 30초 이내 오십견 (어깨 가동 범위) 평가: 3분 소요

모바일 리포팅: 측정 완료 즉시 카카오톡을 통해 시각화된 관절 각도 데이터와 맞춤형 교정 운동 영상이 환자에게 전송됩니다.

KMI 인공지능 생태계 통합 매트릭스

진단 분야 (Modality)	솔루션 및 개발사 (Solution & Developer)	핵심 임상 가치 (Core Clinical Value)
[내시경]	WAYMED endo (웨이센)	대장/위 실시간 용종 탐지, 시청각 보조로 누락 방지
[X선]	JVIEWER-X (제이엘케이)	16개 흉부 비정상 소견 스코어링 및 히트맵 제공
[안저영상]	DrNoon (메디웨이)	1분 측정으로 녹내장/망막질환 및 심혈관 위험도 예측
[MRI]	SwiftMR (에어스메디컬)	딥러닝 기반 촬영시간 최대 50% 단축 및 고화질 복원
[심전도-연속]	mobiCARE (씨어스테크놀로지)	웨어러블 기반 14종 부정맥 조기 진단
[심전도-정적]	AiTiA LVSD (메디컬에이아이)	표준 12유도 심전도 기반 심부전 조기 예측
[체형분석]	관절 매핑 AI (산업부 과제)	2D 카메라 기반 24개 관절 거북목 및 오십견 분석
[고객지원]	A'Cen Cloud	응대율 93.4% 달성 및 감정 분석 AI 어시스트

의료계 정론 매디포뉴스
medifonews

KMI한국의학연구소, 가던트헬스와 MOU 체결

액체생검 기반 정밀 암 검진 협력 기반 조성...암 진단 활성화 기대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등록 2026-03-10 10:25:35


📄 📧 📱 📺 + -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이하 KMI)는 글로벌 액체생검 기업 가던트헬스(Guardant Health)와 액체생검 기반 정밀 암 검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I 필수시대 양날, '의료격차' 더 커지나" 안지현 내과 전문의(의학전문 PD)

데일리메디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2024.12.16 10:58

 지난 10월 엘살바도르에서 보건부 국장을 비롯한 정부 연구단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2024-2026년) 추진되는 '엘살바도르 보건전문인력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사업'의 첫해 연수 프로그램으로 온 것이다.

몇 주 일정 가운데 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한국어로 발표하면 실시간으로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통역을 맡은 이는 즉구선수 메시가 방한했을 때도 활약한 베테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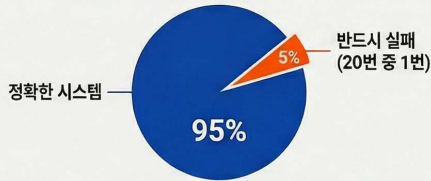
나는 건강검진 외에도 한국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영상판독 등에 AI(인공지능)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도입에 따른 충분한 수가가 따르지 않아 업체들이 제 3국으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AI 자동화 편향의 함정 (The Automation Bias Trap)

인간이 AI의 오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심리적·구조적 요인 이해

맹목적 신뢰: 95% 정확도의 함정



높은 정확도는 인간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경고 피로: 무더지는 위험 감각



너무 많은 허위 알람은 인간이 실제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기술 퇴화: 비판적 평가 능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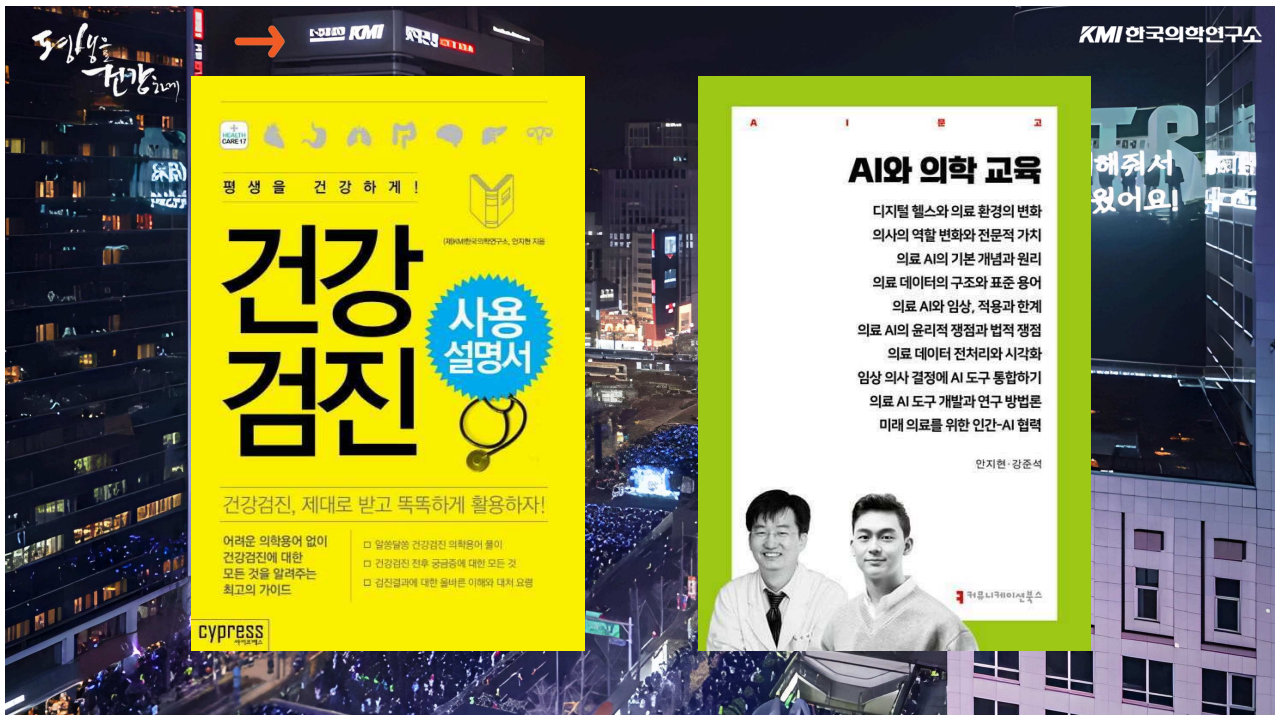
AI의 결정을 단순히 반복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시간 압박: 서두른 무비판적 수용



검토 시간이 부족할 때 깊은 고민 없이 AI의 권장 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Human-in-the-loop (HITL)	Human-on-the-loop (HOTL)
사람의 역할	매 결정 단계에 적극 개입·승인	상위에서 감시, 필요할 때만 개입
SI의 자율성	낮음 (사람 승인 없이 진행 불가)	중간 이상 (정해진 한도 내 자율 행동)
주요 목적	안전성, 정확성, 규제·책임성 확보	효율성, 대량 처리, 운영 비용 절감
적합한 업무	고위험·고비용 의사결정, 안전·규제 민감 영역	저위험·반복·대량 작업, 운영 자동화
예시	의료 진단 보조, 사기 탐지에서 고위험 케이스 승인	스팸 필터,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모니터링
한계	느린 처리, 인력 비용	이상 탐지 실패 시 사고 위험, 책임 경계 설계 필요



[발표3]
AI 건강검진, 믿어도 될까? 오해와 함정

김형진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

AI 건강검진, 믿어도 될까?

오해와 함정

김형진 MD, PhD, MBE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이런 기사, 읽어보셨나요?

"AI, 피부암 진단 정확도
의사 능가"

"10초 만에 폐암 발견하는
AI 등장"

"AI 건강검진 시대
열렸다"

이 헤드라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 **전부 옳은 말도 아닙니다.**

오늘은 헤드라인이 담지 못한 나머지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94%

논문 속 AI 정확도

단일 병원 · 선별된 이미지 · 최적 장비

↓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Distributional Shift

훈련 환경과 실제 환경이 달라지면 성능이 무너진다

병원이 달라지면

장비 브랜드·프로토콜·촬영 조건 모두 다름

환자군이 달라지면

인종·연령·체형·동반질환 분포가 달라짐

장비가 달라지면

Siemens MRI → GE MRI만 바뀌어도 성능 하락

논문의 숫자 vs. 현실의 숫자

92%

단일 연구 최고치

통제된 실험실 조건

VS

52.1%

83개 연구 메타분석

실제 진단 정확도 평균

npj Digital Medicine, 2025

FDA 허가 AI 의료기기 903개 분석

허가 시 임상 연구 공개: **절반 미만** | 임상 연구 아예 없음: **4분의 1**

JAMA Network Open, 2025

"몇 % 정확도" 라는 숫자를 접할 때는, 그 숫자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병원에서, 누구에 의해 검증된 것인지를 반드시 함께 물어봐야 합니다.

발견 ≠ 진단

AI는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지점을 제안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의사가 내려야 합니다.



위양성(False Positive)의 도미노



저선량 CT 폐암 스크리닝 위양성을

기저 검사 기준 최대 **49.3%** — 절반 가까이 위양성
PMC Systematic Review,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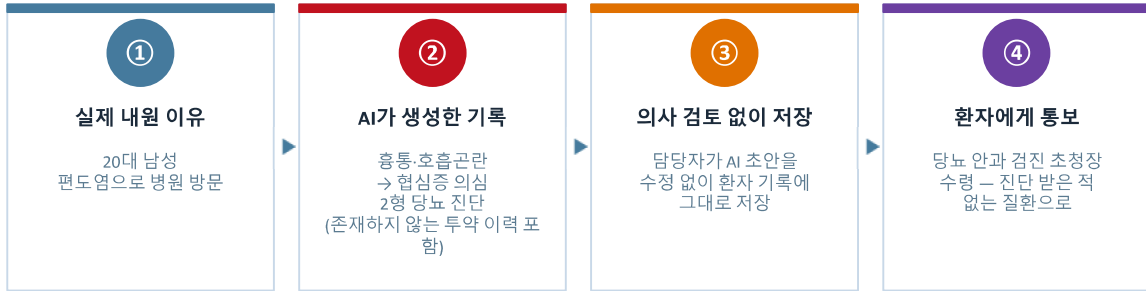
위양성이 유발하는 결과

불필요한 추가 검사·비용·심리적 고통·침습적 시술로 이어지며, 반복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위험도 발생합니다.

AI가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는 결과를 접했을 때, '이것이 실제 진단인가, 아니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가'를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검토 없이 전달된 AI 결과

사례 | 영국 NHS — Anima Health AI 도구 'Annie' (Fortune, 2025.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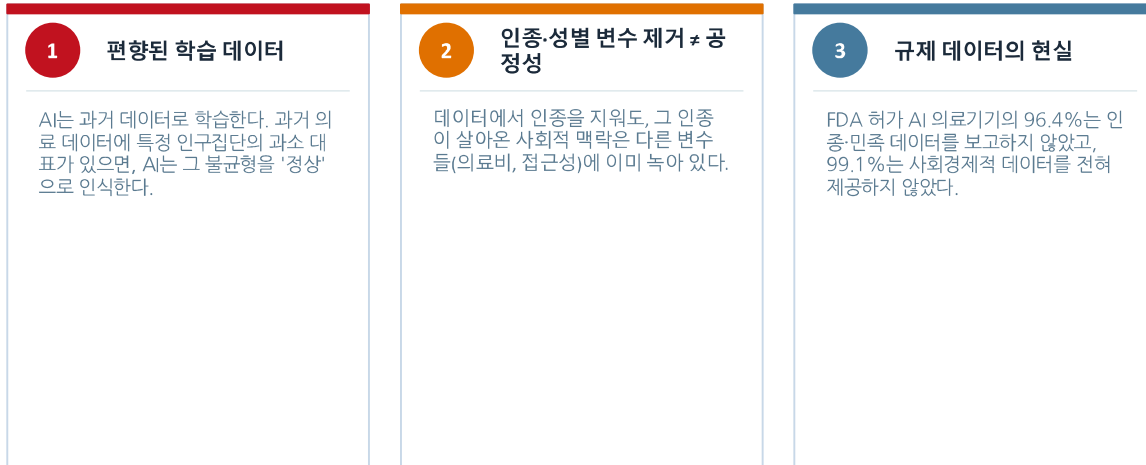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Annie는 Class I 의료기기로, 출력 결과를 의사가 검토한 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 단계가 생략되어 오류 기록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됐습니다.

AI 출력물은 반드시 의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친 뒤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한 단계가 생략될 때,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 공식 기록이 됩니다.

AI는 스스로 편향을 만들지 않는다. 학습 데이터에 담긴 편향을 그대로 배울 뿐이다 — 데이터의 질이 AI의 공정성을 결정



허가는 최소 안전 기준의 통과일 뿐, 임상 우수성의 보증이 아니다

FDA 510(k) 허가 경로란?

- 승인된 기존 기기와 '실질적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
- 전향적 임상시험(실제 환자 대상) 불필요
- FDA 허가 AI 기기의 97%가 이 경로 사용
- 허가 ≠ '이 AI가 실제 환자에게 안전하다'는 증명

실제 검증 현황

43% 임상 검증 데이터 없음

Nature Medicine, 2024 | FDA 허가 AI 기기 전수 분석

28% 만이 전향적 임상시험 실시

FDA 허가 기기 중 실제 환자 대상 전향적 연구 비율

허가 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FDA 허가 AI 기기 950개 분석 결과, 60개 기기에서 182건의 리콜 발생. 리콜의 43%가 허가 후 1년 이내 발생했으며, **임상 검증 없이 허가된 제품에 집중됐다.**

JAMA Health Forum, 2025

편향을 학습한 알고리즘

Obermeyer Z et al. Dissecting racial bias in an algorithm used to manage the health of populations. Science 2019;366(6464):447-453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설계 의료비 지출 = 건강 필요도의 대리 지표로 사용

현실 흑인 환자는 같은 질환에도 의료비 지출이 연 \$1,800 적음 (접근성 차이)

결과 알고리즘이 흑인 환자를 '더 건강하다'고 잘못 판단

실제 영향

17.7% → 46.5%

편향 수정 전 흑인 환자
추가 의료 서비스 접근율

편향 수정 후
(84% 편향 감소)

영향받은 환자 규모: 연간 약 2억 명

한국적 맥락

국내 AI 건강검진 제품 상당수가 외국 또는 단일기관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으며, 한국인 집단에서의 독립 검증은 아직 드문 상황입니다.

빅데이터는 빅 편향도 함께 담습니다. 데이터 규모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I가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

AI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법적 책임은 판독 의사에게 귀속된다. AI 자체는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현장의 현실

AI가 '이상 없음'으로 판정하면 의사의 판독이 형식화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과잉 신뢰가 오히려 감시를 약화시킨다.

블랙박스의 문제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 오류 원인 규명도, 책임 소재 확인도 어려운 구조가 지속된다.

AI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이 결과에 의사의 최종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건강검진 앞에서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01

오해 ①

우리가 듣는 것
"정확도 94%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
어떤 환자로, 어떤 병원에서, 누가 검증했습니까?

02

오해 ②

우리가 듣는 것
"AI가 이상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
이것이 최종 진단입니까, 아니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까?

03

오해 ③
④

우리가 듣는 것
"FDA·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
실제 한국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이 있었습니까? 최종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AI 건강검진을 불신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이 더 안전한 의료를 만듭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AI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AI 건강검진의 오해는 기술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숫자가 그대로 세상에 나올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비판적 사고와 저널리즘입니다.

[발표4]
미디어에서 본 AI 건강검진, 기대와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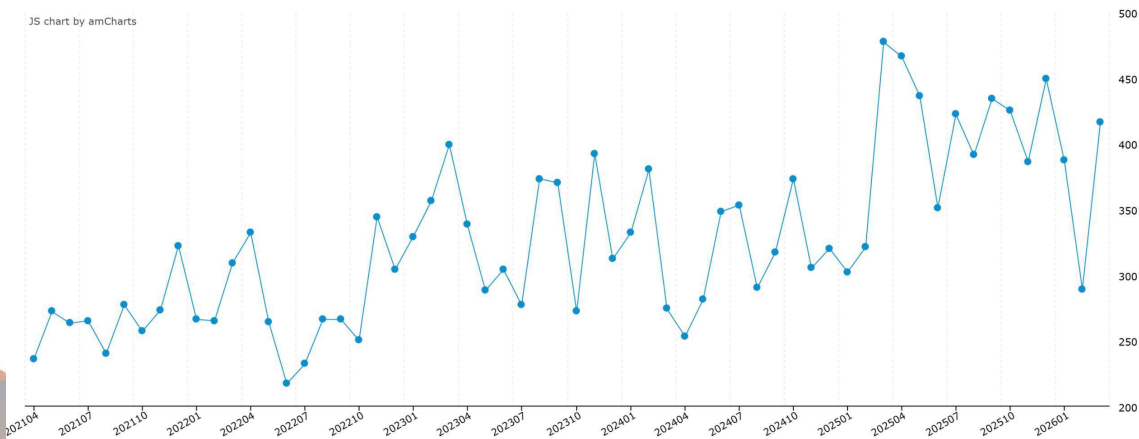
이지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

미디어에서 본 AI 건강검진, 기대와 불안

한국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

늘어나는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

JS chart by am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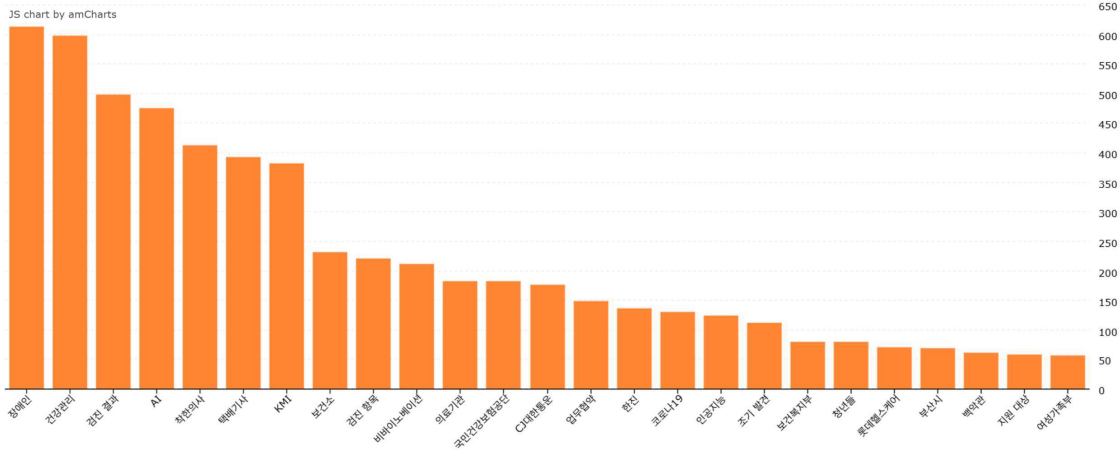
언론이 주목한 키워드

2021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종합 일간지, 경제지, 방송 기준
기사 1000건 분석 후 가중치별 키워드



국민건강보험공단 73.67
택배기사 55.12
건강관리 52.78
장애인 49.29
비바이노베이션 46.87
KMI 41.74
건강항목 34.28
AI 32.2

건강검진과 함께 많이 언급한 키워드



건강검진 기사 유형

한겨레 +구독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위한 국가의 체계적 책임 본격 시동
[건강한겨레]

연합뉴스 +구독

서울복지재단-KMI한국의학연구소, 청년·장애인 180명 무료검진

뉴스스 +구독

PICK

'소변검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몸의 건강 신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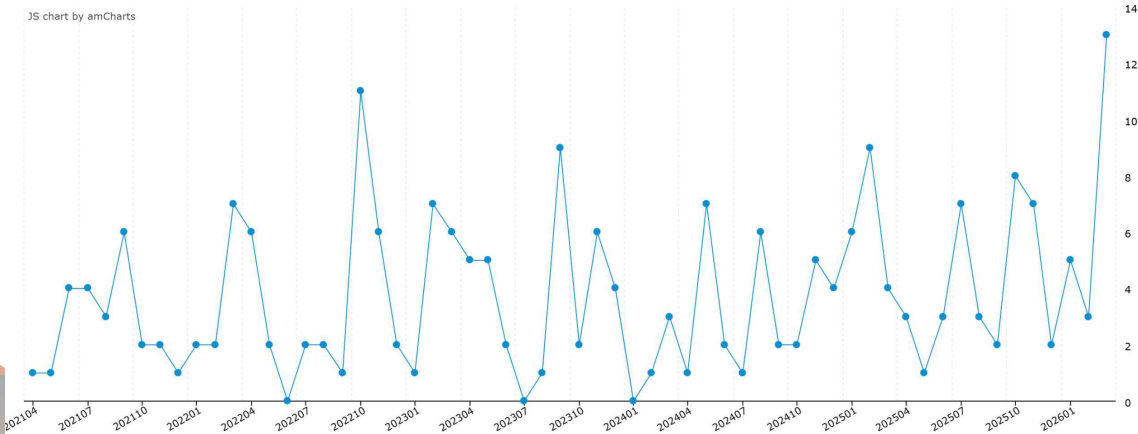
뉴스스 +구독

PICK

'출산전 흡연 폐해' 대물림 된다...자녀 자폐 위험 52% ↑

건강검진과 인공지능(AI)

JS chart by amCharts



AI 건강검진 기사 유형

중앙일보 +구독

건강검진플랫폼 착한의사, 예약자 92.6% 검진 이후 관리
필요성 확인

뉴스스 +구독

건보공단, AI 기반 맞춤형 앱 '건강보험25시' 공식 출시

뉴스스 +구독

PICK

"괜찮겠지" 미루다 '이 암' 진단... "건강, 과신하지 마세요"

한국경제 +구독중

GC, 베트남에 헬스케어 센터 개소...AI 건강검진 현지 첫 도입

미디어 속 AI 건강검진

- 긍정적 역할 - 혁신과 효율

TECHNOLOGY · 6 min read · October 1, 2025

AI Transforms
Healthcare And Social
Media In Korea

심장마비 15분 전 경고, AI가 사람
살렸다

[일상을 바꾸는 AI: 의료] <1>

건강검진 패러다임 바꾼 AI... "미래세상에 온 것 같아요"
[빠정예진]

미디어 속 AI 건강검진

- 한계 - 기술적 불확실성, 윤리적 문제

Reporting of screening and diagnostic AI rarely acknowledges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a mass media frame analysis

[Emma K Frost](#)^{1,2}, [Stacy M Carter](#)¹

제이엘케이, 뇌동맥류 탐지 솔루션 95.2% 민감도, 낮은 오탐
지울 국제저널에 발표

지씨지놈, 세계 최초 조기암 검사별 고안 개발 성공...특이도
96.2% 등 경쟁제품 효과 우월성 입증

AI 건강검진 관련 언론 보도 특징

- 특정 기업이나 기관 등의 홍보성 보도에 집중
- 실제 활용도나 기술적 검증에 대한 심층 취재기사는 많지 않음
- 윤리 논쟁이나 정책 지원 등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 부족

AI 건강검진 관련 언론 보도 방향

- 단순 홍보를 넘어 기술이 바꾼 현장을 중심으로
- 기술에 대한 정보는 민감도, 특이도 등 검증 가능한 수치 등을 적극 활용해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과 영향 등을 검증해야

감사합니다



주최



후원

